



“부흥 향한 열망” 기성총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최근 서산교회에서 ‘2019년 성결교회 부흥기워드 전국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열고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노후를 전했다. 1천여 명이 몰린 이번 행사에는 총회장 윤성원 목사를 비롯해 은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바울교회 원팔연 원로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고, ‘우리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방적인 강의만 아니라 목회 정보와 실재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도도 있었다. © 기성 총회

“선교사들이 전한 보수 신학, 기독교가 민족 구원으로 확장”

영·호남 3.1운동에서 기독교 역할 주제로 박창식, 신종철 교수 발제

한국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세미나가 인사동 소재 승동 장로교회에서 21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열렸다. 예정활동 총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세미나에는 잇달아 ‘영남과 호남’의 3.1운동을 다루는 발제가 있었다.

먼저 영남지역 기독교계 3.1운동사 연구로 박창식 대신대 외래교수 겸 달서교회 담임목사가 발제했다. 그는 “영남 특히 대구 지방의 3.1운동은 전적인 기독교운동”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시 대구의 이갑성 목사는 브루넬 선교사와 협력해, 3.1운동 준비과정에서 기독교가 주축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남지방에는 대구, 마산, 의성이나 영덕이 중심이었다”고 밝히며 각 지역의 중심축을 전했다. 즉 그는 “대구구는 기독교계 지도자와 미션스쿨 중심이었고, 마산이나 부산은 미션스쿨교사와 학생들이 중심이었으며, 의성이나 영덕은 지역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3.1운동이 기독교적 운동”이라던 “이에 대한 교회사적 측면만 부각됐지,

신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함”을 그는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당시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원칙 속에서, 개인 구원과 성화만 강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는 구원론은 좀 더 광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하여 그는 “선교사들의 개인 구원론에서, 일제강점기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구원론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촉구했다.

또 도발적인 발언을 던지며, 그는 “과연 3.1운동이 비폭력 이었는가”를 되물었다. 그는 “종래 3.1운동은 비폭력을 전제로 한 건 맞다”며 “그러나 4월 10일 3.1운동이 극대화 됐을 즈음, 투석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독교인이 다수였던 영덕 지방도 예외가 아니”라며 “주재소, 면사무소에 불도 질렀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다짐들 삼아, 그는 “1920년 기독교적 항일 무장운동과 3.1운동에서 드러난 폭력 운동이 서로 연계된 것 아닌가”라는 연구주제도 주장했다.

이어 신종철 ACTS 교회사 교수도 호남 지역의 3.1 독립운동을 전했다. 그는 “호남지역은 동학운동의 진원지”라며 “보통 3.1운동을 말할 때,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는 “천도교가 양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가장 주도적이고 최선을 다했던 종교는 기독교”라고 단언했다.

신 박사에 의하면, 호남지역은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 1893년부터 미국 남장로교가 미션 스테이션을 담당했다. 이에 신 박사는 “미국 남 장로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보수주의신학이지만, 일제강점기란 상황의 요청에 따라 신앙은 ‘나라 사랑’으로 표출됐다”고 밝혔다. 종래 서구 선교사들이 전한 보수주의 천도교 신학이 조선 기독교인들을 개인 신앙으로 환원시켰다는 시각과 다른 주장을 신 박사는 펼친 것이다. “그게 바로 호남 지역 3.1운동”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서구 선교사들은 천도교 전통에서 훈련 받았지만, 신앙교육과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미션스쿨과 커리큘럼을 통해,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를 한국교회에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애국사상이 별개가 아니라고 교육했다”며 “이런 가르침을 남 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지역 교회지

도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남 장로교 선교사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는 하나님에 거룩한 뜻’이란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신앙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으로 운동을 이어갔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역설했다. 즉 그는 “이들은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곳곳이 이겨나간 것”이라 전했다.

하여 그는 “3.1만세 운동을 거치면서, 호남지역의 기독교는 ‘민족의 십자가’란 모습으로 호남지역에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교회사가 박용규의 말을 빌려 논지를 강화했다. 그는 “기독교가 고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켰다”며 “기독교야말로 자기희생적이고 민족의 미래를 즐기게 열려있는 신앙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든 타종교 지도자들과 이민국에게 보여준 것”이라 인용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동학의 본거지였던, 호남지역은 왜척(倭寇), 반봉건이 주요했다”며 “개신교사 반봉건을 민족 사랑으로 바꿨다”고 주장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노형구 기자

국민 85.4%, 북한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실태 인식 조사보고서 발표

‘2018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발간 기념 세미나가 21일 오후 1시 광화문센터포인트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하에 열렸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 상황 인식 및 개선 여부에 대한 문항에, 85.4%는 ‘심각’이라 응답했고, 10.9%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에 비해 33% 증가했으나, ‘나빠지고 있다’는 37.6% 감소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 조짐에 의한 착시효과인 듯하다”며 “북한인권의 실제 상황과 국민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전했다.

또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5.1%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0.4%는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간의 회담 진행이 북한인권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61.2%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38.4%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북한인권 개입 여부에 대한 입

장’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7.25는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67.9%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변화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 개입을 강조한 응답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45.6%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반면, 47.2%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 응답했다. 다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미·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인권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적 인식”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인권개선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 응답

자의 36.3%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뽑았다. 다음으로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33.8%),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8%) 순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적 방법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이 가장 높았다”며 “이제 국민들의 인식은 ‘대화’와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4.3%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꼽아 가장 높았다. 이어 ‘긴급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 정치적 활동’이 22.5% 순이다. 북한인권센터측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활동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인권기록과 국내외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먼저 된 자는 먼저 죽는 자여야 한다”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남강 이승훈 선생’ 주제로 대담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가 남강 이승훈 선생을 주제로 21일 오전 10시에 강변교회에서 대담을 가졌다. 3.1운동 33인 대표 중 한명인, 남강 이승훈 선생, 기독교적 민족정신을 지닌 리더를 기리기 위해 지금 시가 100억 원의 사재를 털어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김명혁 원로 목사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가 오산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먼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던 이승훈 선생은 16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규합하는 등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다”며 “그러나 정치적 욕심은 없었고, 오직 민족을 위해 후진 양성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민족 해방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독교만이 아닌 모든 종교가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셨다”고 긍정했다. 즉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큰 그릇으로 민족 해방이란 대의를 위해 천도교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시 33인 민족 대표 중, 기독교 지도자 16인 사이에서 ‘독립청원으로 할 것인지, 독립선언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독립선언’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자주적 독립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철저히 예수의 정신을 따라, 평화, 비폭력 사상을 추구했다”며 “이는 원수를 갚는 개념이 아닌, 비폭력으로서 원수를 삼켜 악을 녹여 내리는 것”이라 고 역설했다. 이를 계승한 것이, 바로 “오산학교였다”며 “비폭력, 평화, 사랑을 담지한 민족의 리더를 함양하려 했던 큰 그릇”이라고 박 목사는 평가했다.

김명혁 목사도 이승훈 선생에 대해 “민족주의자를 표방했지만, 예수를 믿

은 후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려놓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선을 압제했던 일본인들조차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이승훈 선생이었다”며 “모두를 품을 수 있던 이승훈 선생의 정신은 곧 3.1정신과 맥이 같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3.1운동과 이승훈 선생의 정신이었다”고 김 목사는 평가했다.

특히 김명혁 목사에 의하면, 33인 선생 중에 16명 기독교 지도자들은 ‘누가 먼저 리더가 될 것인지’를 쟁론했다고 한다.

이에 이승훈 선생은 “먼저 된 자는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곧바로 천도교 손병희 대표를 추천했다. 그만큼, 김 목사는 “대의를 위해서, 천도교인들을 포용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이승훈 선생”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서울의 박희도 목사, 대구의 이갑성 목사를 동지로 포섭했다”며 “당시 기독교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립을 통해 끝까지 천도교와 연합하려했던 3.1운동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중에 갇히고, 이후 불에 태워진 오산학교를 건립 했다”고 말하며, “오산 학교를 졸업했던 한경직 목사의 회고”를 전했다.

김 목사에 의하면, 한경직 목사는 “4학년이었을 적, 남강 이승훈 선생은 학교에서 일본사람에게 고문 받은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경직 목사는 “3.1운동 이후 여러 민족지도자들은 일제의 고문 때문에 변절했다”며 “그럼에도 61세였던 이승훈 선생은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할거야’라며, 말할 때도 불을 뿜으셨다”고 회화했다.

▶관련기사2면

美국무부 “北인권 개선 사업에 600만 달러”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일,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약 3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감시한은 오는 5월17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500만 달러라고 VOA는 전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 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북한의 국내법과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른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표현과 이동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1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범 목록 등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개적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강제 복송 등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 북한의 인권 상황을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 발표, 국제 무대나 관련 무대에서 보고서 제출이나 옹호 활동 등을 꼽았다.

국무부는 2개에서 5개의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활동 기간은 18개월에서 42개월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들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고정 지원금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감시한은 역시 5월 17일이며 각 부문에 3개에서 8개의 사업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평양뉴스

1면에 이어서

대답이 이어졌다. 김철용 목사가 사회를 맡은 대담에서, “이승훈 선생이 동북아 평화를 강조하셨는데, 현재 그가 살아 있다면 남·북·미 관계를 위해 어떤 조언을 했을지”란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아프리카, 중동 등지의 나라들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남한만큼은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이승훈 선생은 갈라다이어 5장 1절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셨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이승훈 선생은 ‘한반도만의 평화’가 아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평화는 무력이나 핵무기가 아닌, 오로지 비폭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실 것”을 전했다. 하여, 그는 “평화가 없다면, 자유는 없는 것”이라며 “한반도뿐만 아닌, 동북아 전체의 공동 평화를 적극 조언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회자는 “이승훈 선생은 조선 최초로 무역을 주장하셨다”며 “1896년 만민공동회에서 ‘반상 제도 차별을 없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파격적인 연설도 하셨다”고 했다. 이처럼 “이승훈 선생이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란 질문을 김병혁 목사에게

게 던졌다.

이에 김 목사는 “이승훈 선생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반대하셨고, 예수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주장하셨다”고 강조했다. 또 김 목사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며 “지금 장로교안에는 300개의 교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이승훈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예수 평화를 적극 추구할 것”을 역설했다. “이런 정신으로 북한동포, 무슬림들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자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박희도, 정춘수 목사는 친일로 변절했다”며 “이들의 변절로 이승훈 선생은 비통함이 막대할 것 같다”고 유추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3.1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를 통해 민족정신을 찾아가려 했는데, 신사참배도 그 일환”이라 설명했다. 더구나 박 목사는 “3.1운동 선언 때 정춘수 목사는 ‘독립 선언’이 아닌 ‘독립 청원’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박 목사는 “정춘수 목사는 ‘일제 강점기는 하나님이 우리 조신에게 주신 벌이니, 달게 받아야 한다’”며 “일제에게 조선 독립을 ‘부탁’한다는 어조를 견지했을 것”이라 유추했다.

특히 박 목사는 “당시 독일 나치에게 교황도 타협했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3.1운동 때 천주교의 정책은 ‘일본 식민 지배는 조선이 승복해야 할 체제’라며, 일제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 목사는 “이승훈 선생의 항일 정신은 당연하게 아니”라며 “그분



김병혁 목사(왼쪽)와 박종화 목사 © 노형구 기자

이 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도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그는 “정춘수 목사가 변절을 택한 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 보다 “인간의 본질적 약함을 생각하며, 이승훈, 주기철 목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사회자는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나와 있다”며 “당시에 정춘수 목사 등 변절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로마서 13장 해석을 어떻게 했을지”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병혁 목사는 “모든 권세를 인

정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즉 그는 “나쁜 권세도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사용하실 수 있다”며 “이런 논리로, 모든 권세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유신 정권에 대해 기독교 재야인사들이 투쟁했던 것처럼, 이승훈 선생도 끝까지 예수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베드로나 유다 같은 변절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자”며 “도리어 마지막 까지 일제에 항거했던 주기철, 이승훈 선생을 바라보며 배우자”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이승훈 선생은 민족주의

자가 아닌 예수 주의자였다”면서 “이처럼 우리도 공산주의자, 무슬림들을 순수한 사랑으로 품을 것”을 말했다. 특히 그는 “이런 사랑을 견지한 민족 지도자 6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회복 된다”며 “주기철, 장기래, 이승훈, 한경직 등 이들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본받자”고 촉구했다.

끝으로 사회자는 “이승훈, 조만식 장로 등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어떠한 중 요하다”며 “남북 관계 증진에 있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파가운 시선이 존재 한다”고 말했다. 하여 그는 “3.1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박종화 목사는 “3.1운동은 혼자 곧, 나홀로 지도력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다 함께 지도력”이라며 “현 한국교회가 교단 간 분열이 팽배한 상황에서 귀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지도력은 합하는 것”이라며 “예수를 중심에 두면, 갈라지지 않음”을 전했다.

특히 그는 “예수의 몸에 붙는 ‘지체’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항상 자기가 몸인 양, ‘내 중심으로 모여’라는 지점에서 분열이 생김”을 꼬집었다. 또 그는 “지체는 다양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다”며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말로 논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교파도, 사람도 모두 같을 수 없기에, 화합(Harmony)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이승훈 선생 등 3.1운동

지도자들도 이런 화합을 이끈 지도자였다”며 “결국 남·북 관계, 교회 연합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조화를 이룰 리더십”을 당부했다.

김 목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승훈 선생도 ‘지도자는 먼저 죽는 사람’이라며 희생정신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희생에는 가난과 고난이 뒤 따른다”며 “손양원, 이성봉, 주기철 목사 등은 다 거지로 살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성봉 목사 자체들도 거지처럼 살았다”며 “이처럼, 신앙의 선배들은 부자가 없다”고 재차 말했다.

또 그는 “박종화 목사의 말처럼 화합이 중요하다”며 “교단끼리 ‘강단 교류’ 등이 좋은 화합의 방법”이라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구원은 첫째 단계고, 예수 안에서 화해, 평화, 통일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셨다”며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고난을 감수해, 모두를 끌어안은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는 전했다.

이처럼 예상합신, 기독교장로회(한신대)의 두 원로인 김병혁 목사와 박종화 목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리더십으로 ‘화합’”을 강조하며, ‘남강 이승훈 선생이 한국교회에 남겨준 정신’에 대한 대담을 마무리했다.

홍은혜 기자

‘교회오빠’ 故이관희 집사 이야기 영화로 나온다

5월 개봉

지난 2017년 방영 직후 명품 다큐멘터리로 불리며 전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KBS 스페셜 ‘알: 교회오빠’의 주인공 故이관희 집사,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교회오빠’가 다가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1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교회오빠’의 1차 포스터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는 故이관희 집사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4기 대장암 판정을 받은

후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연이은 아내의 4기 혈액암 소식까지 감히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닌 감사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라는 포스터 카피처럼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냈던 구약성서 ‘욥기’의 ‘욥’과 같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故이관희 집사. 그가 마주한 고난을 상징하듯 감람한 아들이 故이관희 집사

를 둘러싼 가운데 희미하게 비치는 한줄기 빛 앞에서 두 손을 꼭 짚 채 기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교회오빠’의 1차 포스터는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들려줄 묵직한 감동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믿기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이관희 집사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 휴먼 다큐 ‘교회오빠’는 오는 5월 개봉과 함께 전국에 또 한 번 자유와 회복, 사랑과 깨달음의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SYNOPSIS

“하나님, 저희 가정 이라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4기 대장암 소식,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항암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알게 된 아내의 4기 혈액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도 매달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없었다.

“내 안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

는 삶…”

마치 ‘욥’과도 같은 인생.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에도 남편 이관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루라도 더 ‘운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갔던

이관희 집사의 순전한 믿음이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진다.

이나래 기자



예성, 태국에서 2019년 해외선교전략회의

예수교대한선교교회(총회장 윤기순 목사) 총회 선교부가 주최하고 해외선교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예성 해외선교전략회의’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

콕에 소재한 ‘라마다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있었다.

한국 방문팀과 선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금번 모임에는 총 4회의 전

략회의를 가정으로 앞으로의 해외선교에 대한 교단 차원에서 선교전략 방안들에 관한 내용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예비 선교사를 위한 예성 선교지에서의 1개월 인턴 실습과정 실시, 해외 거점도시에 예성 해외선교의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선

교센터와 한인교회 설립, 해외에서의 선교사 후임자 요청시 총회 해외선교위원회와 선교부 논의 후 선정, 선교사 파송 교회들을 위한 선교사 지원 매뉴얼 제공,

예성 해외선교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해외선교전략회의 개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용국 기자

다산의 마지막 공부

조운제 지음

“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퇴계가 평생 새벽마다 탐독했던 책
다산이 생의 마지막에 붙들었던 책

지적 거인들이 마지막에 도달한 천년의 교전. 《심경》

출간 즉시 전국 베스트셀러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행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운제 지음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조운제 지음 | 값 15,8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조운제 지음 | 값 15,800원

창림출판

TEL 02-546-4341 FAX 02-546-8053 www.chungrim.com

설교

인생역전(人生逆轉) -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창:19-20/13:1-4)

1. 수치를 풍요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9-20절, 13장 1-4절)



만교교회
김병삼 목사

12: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번 변화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인생역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셨던 역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전의 배후에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아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근거해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교만하고, 교만은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번 변화산의 주제를 ‘인생역전’이라 정하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고 해야 옳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주 하려는 시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신앙은 의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지적 행동이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길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꽤 기독교적인 방법처럼 들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점점 죄를 덜 지으려는 행동으로 우리의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둘째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애쓰기 보다는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는 끊임없는 관심과 인정, 공감과 사랑을 받으려고 살아

왔지만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때론 부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을 하시는 청주의 주서택 목사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입니다.

수년 전 복지시설에서 만난 보성마비 장애우가 있다. 그는 30년간 자기 집 다락방에서 고립돼 살았다. 부모는 아들의 존재가 알려 질까봐 손님이 오면 다락방에 있는 아들에게 속소리도 내지 말라고 야단쳤다. 어머니가 올려주는 밥을 먹으며 살던 그의 유일한 친구는 라디오였다. 어느 날 그는 기독교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다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적은 쪽지를 다락의 창문 밖으로 날려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던 한 행인이 그 쪽지를 보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와 시설에서 살게 됐다. 그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숨을 필요가 없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의 분신인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열등하고 못난 부분을 숨기려고 애쓴다. 사람들에게 잘난 것만 내보이며 못난 부분이 드러날까봐 긴장한다. 하지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갖게 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 얼굴을 부끄들같이 굳게 하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안다고 주님의 자녀들은 외칠 수 있다(사 50:7).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다.

◆왜?

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좋아합니다.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의 근원이라 불리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축복 이전에 ‘수치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아브람의 인생에 왜 ‘수치’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참 수치스러운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스런 일’은 갑자기 예기치 않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일 역시 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자연 재해를 통해 다가온 일이었죠.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까. 창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가 이들 모두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란’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는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8절.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벨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벨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가졌던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까.

이 세상이다 피폐해져도 우리 가정만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기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능하면 ‘은실의 화초’처럼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도들,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내가 선 자리에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기를 바라는 기도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 땅에 내렸던 ‘기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피하게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인생의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결정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완전히 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하여 신앙인으로 분명하게 책임지고 반응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닥뜨리는 이유는, ‘쉬운 길’ ‘피해갈 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과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 결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 지금부터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기 전인 아브람으로서의 인생과 아브라함으로서의 인생의 차이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기근을 만나 최선의 선택으로 간 애굽에서 아브람은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얻었지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인간 아브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가 생각한 해결책이 얼마나 치사한 일이었는지... 인간의 능력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

그렇게 치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 아브람의 ‘민낯’을 보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펠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실망’(disappointments)이라고 읽는 대신 그 단어의 한 글자를 바꾸어 ‘그의 약속’(his-appointments)이라고 읽을 때가지는. 그렇게 바꾼 것은 멋진 일이었다. ‘실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의 약속’은 실망스러운 일을 기본 좋게 받아들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국 초콜릿 ‘스니커즈’를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의 이 초콜릿의 광고 문구입니다.

“You are not you when you are hungry” “배가 고킬 때, 당신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달라지니 빨리 스니커즈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장 원초적 욕구에 직면할 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초적 욕망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인생역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 두려웠고, 아브람을 불러 아내를 돌려주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땅을 떠날 때 모습을 보니, 창세기 12장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작은 기근이었으나, 애굽으로 피난갔던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복을 더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3장 1-2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족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는 부분이 NIV 성경에 보면 ‘Abram had become very weal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올 때는 가난했지만,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는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를 부르셔서 예배했던 장소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3장 3-4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아브람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추억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창세기 12장 7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

신지라 자기에게 나타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때가 언제인지 주목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람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배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이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아브람의 인생에서도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소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락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추측인데,

아브람이 가나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지만, 가뭄으로 인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아쩔 수 없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브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들이 악은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그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늘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육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하는 일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결정과,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내리는 결정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법칙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도, 그가 머무는 가나안에 가뭄이 오면 그의 인생도 곤고해 집니다.

문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최선이냐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선하다는 것 역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의 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며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방 땅 애굽에서도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만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의 최선으로 해결책을 찾은 아브람,

그리고 수치스런 일을 당해야 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의 일을 추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했었지. 그래,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해야지.”

- 감사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생의 ‘아픔’도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감사드렸던 그 장소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이 오지 못한 가족, 이방 땅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

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고, 우리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큰 감사에는 커다란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진리입니다. 장준식 목사가 쓴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에 참 좋은 통찰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놓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아픔을 당하셨다. 우리도 그 은혜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갈대처럼 가벼운 마음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영혼(존재)의 울림이다. 약속이니까 아프다. 그렇게 때문에 구원은 값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우리의 인생이 어찌와는 다른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인생역전’은 예배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며,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람의 인생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 하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아브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동일한 위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핍함’이었다면, 제단을 쌓고 감사를 고백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풍족함’ 때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타락과 죄는 궁핍함에서도, 풍족함에서도 오히려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7-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생역전’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머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의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4절이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이 처음 자신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던 그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며,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장소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곳,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이 바로 예배처이고, 교회입니다.

신앙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신앙인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성전신앙’이 들어오

